

“에이스가 돌아왔다” 류현진 12승 AL 다승 1위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디트로이트와 홈경기

7이닝 5K 무실점 완벽투

토론토 3-0 승리 이끌어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세 번째 도전 만에 시즌 12승을 수확했다.

류현진은 22일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다.

안타 5개와 볼넷 1개를 내줬으나 병살타 3개를 유도하며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삼진은 5개 속아냈고, 볼넷은 1개 내줬다. 3-0 승리를 이끌며 팀의 3연패를 끊어낸 호투였기에 더욱 값졌다.

류현진은 지난 4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11승을 거둔 이래 세 번째 도전 만에 승수를 추가하고 크리스 배시(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게릿 폴(뉴욕 양키스)과 함께 아메리칸리그(AL)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류현진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통산 두 번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8.59를 남겼다.

토론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다시 만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류현진은 에이스다운 위용을 과시했다.

야구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 서번트를 보면, 류현진은 이날 투구 수 105개를 포심패스트볼 40개(38%), 체인지업 29개(28%), 컷패스트볼 22개(21%), 커브 14개(13%)로 채웠다.

포심패스트볼 평균 시속은 90.8마일(약 146

km), 최고 시속은 93.5마일(약 150km)이었다.

류현진은 1회초 선두타자 데릭 힐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요나탄 스토프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고, 로비 그로스에게 유격수 방면 병살타를 유도했다.

2회초를 삼자범퇴로 정리한 류현진은 3회초 2사에서 빅토르 레예스에게 좌전 안타를 내줬으나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4회초 1사 1루에선 4번 타자 미겔 카브레라를 유격수 방면 병살타로 유인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5회초 1사에서 해롤드 카스트로에게 우월 2루타를 얻어맞고 처음 득점권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류현진은 잭 쇼트를 유격수 땅볼, 더스틴 가노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을 허락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6회초 선두타자 레예스에게 중전 안타를 내줬으나 세 타자를 범타로 묶고 또 실점하지 않았다.

7회초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카브레라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이날 경기 첫 볼넷을 허용했다.

제이머 칸텔라리오의 잘 맞은 타구는 류현진의 왼발을 맞고 2루수 앞으로 향했다. 다행히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타구가 굴절된 덕분에 주자 카브레라가 2루에서 포스 아웃됐다.

류현진은 카스트로를 2루수 방면 병살타로 유도하고 임무를 완수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이 내려간 뒤 8회초 팀 메이저, 9회초 조던 로마노를 투입해 3-0 승리를 지키고 3연패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이렇게 좋을수가... ‘임희정 하이원리조트 오픈 우승



22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CC에서 열린 KPGA ‘국민힐터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2021’에서 우승한 임희정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 반전 이끌던 KIA, 이번엔 ‘코로나 암초’

퓨처스 선수 1명 확진 판정

최악의 경우 선수 수급 못해

협난한 8연전 속 마운드 위기



“여름 반전”을 이룬 KIA 타이거즈가 ‘코로나 암초’를 만났다.

KIA 타이거즈의 퓨처스 선수 1명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퓨처스 선수단 전원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1군에 등록된 박준표도 PCR 검사를 받으면서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변수가 발생한 이날 KIA는 키움과의 시즌 10차전을 갖고 협난한 8연전에 돌입했다.

21일 키움과의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8연전 일정이 만들어졌다.

28일부터 2연전 일정이 시작되면서 예정대로라면 25-27일 3연전과 함께 다음 주 5경기만 치르면 됐다.

하지만 앞서 전반기에 우천 취소됐던 키움과의 경기가 23일 월요일 경기로 편성됐고, 21일 다시 우천취소 경기가 나오면서 일정이 비어있던 24일에 경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KIA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연전 강행군을 펼치게 됐다.

KIA는 쉽 없이 8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약재까지 겹치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했다.

KIA는 ‘위기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형우·나지안·유지혁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무기력한 볼넷을 보냈고, 지난 6월에는 맹덴에 이어 브룩스가 나란히 팔꿈치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6승 17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KIA는 7월 6전 전승을 달리며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두산·NC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전반기가 일찍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기대감 속에 후반기 시작을 기다렸던 KIA는 리그 재개 직전 브룩스가 대마초 성분인 있는 담배 반입으로 퇴출당하면서 다시 또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KIA는 22일 경기 전까지 4승 3무 1패, ‘8할’의 승률을 찍었다. 맹덴의 복귀와 선발진의 분전 속 최형우가 ‘해결사’로 돌아오면서 우려의 시선을 털어내고 8월에도 가장 뜨거운 팀이 됐다.

하지만 KIA는 상승세 길목에서 ‘코로나’ 변수를 만났다. 브룩스 이탈에 이어 김유신의 부상, 8연전 일정이 겹치면서 특히 마운드가 ‘비상 상황’이다.

PCR 검사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퓨처스 선수단에서 선수 수급을 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1군 전력으로 8연전을 치러야 하고, 그 여파는 9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

추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나오면 사실상 KIA 퓨처스 선수단은 울스톱 상태가 된다. 자가 격리 기간과 재검정 시간까지 고려하면 9월 중반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

9월에는 3차례 더블헤더도 예정돼 있다. 당장 9월 첫날부터 두산과의 원정경기를 더블헤더로 소화해야 하고, 12일 광주 NC전, 29일 창원 NC전에서 하루에 2경기를 치러야 한다.

비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마운드 경주의 수를 계산하느라 머리가 복잡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투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9월에 더블헤더 경기가 3차례 있고, 비 예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변수가 많다”며 “밀접 접촉자 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빨리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마운드 운영은 그다음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은 있지만 더블헤더도 있기 때문에 투수 파트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9월 1일까지 더블헤더가 잡혀있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임기영으로 8연전 일정을 시작한 KIA는 내복사근 부상으로 빠진 김유신을 대신해 24일 윤중현을 선발로 기용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적지서 대구 2-1 꺾고 2연승

내일 성남과 최하위 싸움

광주FC가 적지에서 역전극을 연출하며 2연승을 만들었다.

광주는 지난 2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1 2021 26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0-1로 뒤진 후반 14분과 23분 엄지성이 이어 여봉훈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승부를 뒤집고, 연승을 이었다.

팽팽한 힘 겨루기가 전개된 전반 30분 광주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 세징야의 크로스를 받은 정태욱이 눈스톱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윤영국이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면서 위기를 넘겼다. 윤영국은 전반 40분에는 라마스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쳐내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후반 시작 4분 만에 실점이 기록됐다.

정승원의 패스를 받은 김진혁이 오른발로 밀어낸 공이 윤영국을 지나 광주 골대로 향했다.

후반 14분 ‘막내’ 엄지성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프리킥 상황에서 이득이 떠온 공을 엄지성이 오른발로 터치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엄지성의 시즌 3호골.

동점골을 만든 엄지성은 9분 뒤 역전골에도 관여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엄지성이 키커로 나서 크로스를 올렸다. 이어 혼전 상황에서 공이 뒤로 흐르자 여봉훈이 문전으로 달려들어 오른발로 대구 골대를 갈랐다.

이어 광주는 대구의 거센 공세를 버티면서 2-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서울과 전북 원정에서 잇달아 패배를 기록하면서 비관 끝에 섰던 광주는 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 이

어서 투혼을 발휘했다. 끈끈한 조직력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고맙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역전을 이뤄냈다. 감독으로서 정말 기쁘다”며 “세프피스 공격과 수비 상황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 상대 재공권이 높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했다. 중요한 타이밍에 집중력을 발휘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최고의 활약이었다. 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선수다. 오늘 경기 일등공신이다”며 선방쇼를 펼친 윤영국에게 찬사를 보낸 김호영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2연승과 상관없이 절대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는다. 선수들을 믿는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선수들에게 ‘초심’을 주문했다.

김호영 감독의 이야기대로 연승을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24일 오후 7시 안방에서 중요한 일전을 치른다. 최하위 싸움 중인 성남을 맞아 3연승을 달려야 비로소 광주가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 전용태 26일 챔스필드 시구

2020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근대5종의 역사를 새로 쓴 전용태(사진·광주시청)가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KIA는 26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도쿄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리스트 전용태를 초청해 승리 기원 시구 행사를 연다.

전용태는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근대5종 사상 첫 올림픽 메달 주인공이 됐다. 아시아 선수로 따져도 두 번째 메달이다.

전용태는 이날 12번이 마킹 된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



을 예정이다. 12번은 다음 올림픽 때 1위 또는 2위를 하고 싶다는 뜻에서 선택한 번호다.

한편 근대5종은 한 명의 선수가 펜싱, 사격, 수영, 승마, 육상 5개 종목에 출전해 각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종목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YMCA유소년야구단이 제1회 순창고추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YMCA유소년야구단 제공)

광주YMCA유소년야구단 창단 후 첫 우승

제1회 순창고추장배 전국대회

‘즐기는 야구’를 표방하는 광주YMCA유소년 야구단이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YMCA는 최근 끝난 제1회 순창고추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결승에서 세종엔젤스유소년 야구단을 5-4로 꺾으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5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이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순창군 팔덕야구장 등 총 6개 야구장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90개 팀이 참가해 새약리그(U-9), 꿈나무리그(U-11), 유소년리그(U-13), 주니어리그(U-16) 등 총 6개 부문에서 열전을 펼쳤다.

조별리그로 예선이 진행된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선이 치러졌다.

광주YMCA는 유소년리그 백호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연수구나인유소년야구단을 5-4로 꺾는 등 3전 전승으로 조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8강에서 만난 화성시유소년야구단을 12-0, 3회 콜드승으로 제압한 광주YMCA는 4강에서는 전주완산유소년야구단을 6-3으로 꺾었다.

그리고 세종엔젤스와의 마지막 경기도 5-4 승리로 장식하면서 우승팀이 됐다.

2017년 인제군수배 준우승, 2021년 순창강천산배 준우승을 기록했던 광주YMCA는 마침내 ‘즐기는 야구’로 우승 고지를 밟았다.

박하민(백운초6)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임윤우(송의중1)가 우수선수상을 수상하였다.

우승을 지휘한 최용규 감독은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의 모토처럼 생활 속에서 즐기는 야구, 공부하면서 즐기는 야구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